



# 한파·폭설로 전력사용 급증, 수급은 이상 무

- 월전 20기 가동으로 전력수급은 안정적

이번 주 한파와 서해안 중심의 폭설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일일 최대 전력수요가 81~86GW 수준이었으나, 이번 주 화요일(1월 23일)에는 89.2GW까지 높아졌다.

이처럼 일주일 사이에 전력수요가 급증한 이유는 북극 한파로 인한 이상 저온, 폭설로 인한 태양광 이용률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서울 최저기온이 영상 4도였으나, 이번 주에는 영하 14도까지 급락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태양광 패널 위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오전 10시의 태양광 이용률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오전 10시 태양광 이용률 : 1.22(월) 12%, 1.23(화) 13%, 1.24(수) 16%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당국은 예비력\* 15GW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 주 정비를 마친 한울 1호기와 한빛 2호기가 이번 주부터 전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 또한 신한울 2호기도 시운전을 통해 전력공급에 일부 기여하고 있다.

\* 전력당국의 수급운영 기준은 10.7GW이며, 5.5GW 미만시 위기경보(준비단계) 발령

## < 이번 주 전력수급 현황 (단위 : GW) >

구분	17(수)	18(목)	19(금)	22(월)	23(화)	24(수)	'22.12.23(금)
최대수요	86.2	83.0	81.0	86.7	89.2	88.5	94.5(역대최고)
예비전력	17.4	19.3	20.3	17.6	15.7	18.9	11.1
기온°C(서울)	-2 ~ 2	1 ~ 9	4 ~ 9	-12 ~ -2	-14 ~ -8	-11 ~ -4	-14 ~ -9
태이용률(피크시)	9%	10%	7%	1%	8%	16%	15%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수도권에 전력과 난방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인 서울복합 발전소를 방문하여 핵심 전력시설 관리 현황을 직접 살피고, 전력거래소와 영상회의를 연결하여 올겨울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차관은 “현재까지 예비력이 충분하며, 남은 겨울철 전력수급 기간(`23.12.4.~`24.2.29.)동안에도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교대 근무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 **올겨울 전력수급 및 수도권 핵심 전력공급 시설 준비상황 점검**

□ **회의개요**

- (일시) 2024. 1. 25.(목) 10:00 ~ 11:00
- (장소) 중부발전 서울복합
- (참석자)
  - 정 부 : 산업부 제2차관, 전력산업정책과장
  - 유관기관 : 중부발전 사장, 한전 부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 **세부 일정**

※ 모두발언까지 공개

일 시	내 용	비 고
10:00 ~ 10:05 (5')	도착 및 이동	(8층 대회의실)
10:05 ~ 10:9 (4')	<b>모두 발언</b>	<b>2차관</b>
10:09 ~ 10:16 (7')	「올겨울 전력수급 현황」 발표	전력거래소 이사장
10:16 ~ 10:23 (7')	「겨울철 송변전 설비 관리 현황」 발표	한전 부사장
10:23 ~ 10:30 (7')	「전력피크 대비 서울발전본부 운영 대책」 발표	중부발전 서울본부장
10:30 ~ 10:35 (5')	<b>마무리 발언</b>	<b>2차관</b>
10:35 ~ 10:55 (20')	<b>중앙제어실 및 지하발전소 현장 순시</b>	기자단 동행
10:55 ~ 11:00 (5')	<b>환송 및 기념촬영</b>	(1층 로비)